

# 학생징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줘야

### 도교육청, 학생징계 관련 안내 각급 학교 전달... 사유 경중 따라 징계 종류 단계별 적용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징계하러 할 때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징계 관련 안내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징계 안내 자료를 보면 학생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위원회는 교감(교무부장)이 위원장, 인성인원부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잘못을 누우치고 고칠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의무교육과 정 학생 제외) 중 반드시 1개만 조치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등교 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와는 달리 일반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 징계는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 교육적인 차원의 징계로 다른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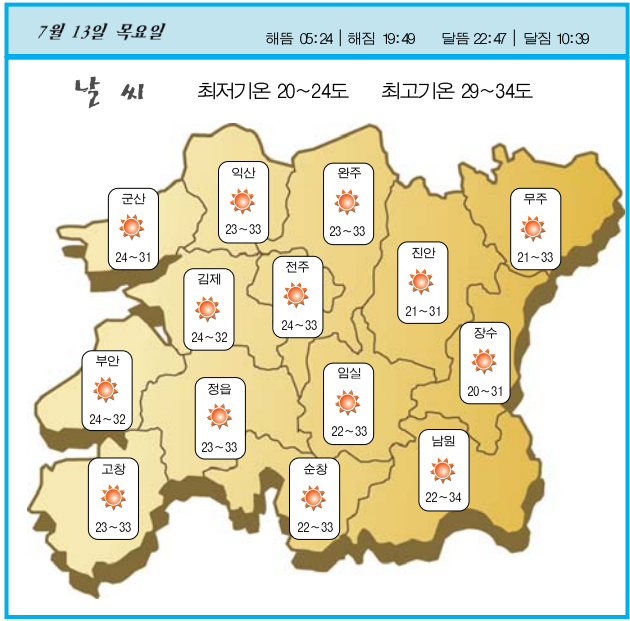
체중감소에 효과 있는 '영지버섯'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관계자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영지버섯이 체중감소와 혈액, 간지방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로의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도교육청은 부득이하게 퇴학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하고 상담을 통해 진로상담,

위탁교육의 대안을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학생 징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진행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도서관, 전국 대학 도서관 중 '최고'

전북대학교 도서관이 국내 대학 도서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대학도서관 시범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전국 대학도서관을 29개 정량 지표로 가능했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4년제 대학 중 최고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 도서관은 지난 2014년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4,492㎡ 규모로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디지털 도서관으로 신축 개관했다. 소장 단행본 자료에 태그를 부착

하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해 대출과 반납의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료검색부터 시설 이용까지 모두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중심의 학습정보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갤러리와 멀티미디어 시설 구축을 통해 기존 도서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개념을 확립했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학습환경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지역 사회 교육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재외동포, 전통문화 정수 체험 위해 전주 방문

### 전주시,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4명 대상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운영

고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정수를 체험하기 위해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은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1개국에 거주하는 10세부터 15세까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4명을 대상으로 '2017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전주시는 이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21개국 한글학교 교사 등 34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진행했던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각 국가별로 겨울방학이 상이한 관계로 7~8월 중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에 한정됐던 프로그램을 한글학교 교사 등 교육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통문화 기반이 풍부한 전주에서 직접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습득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주를 알리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주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활용해 한글교육과 함께 사물놀이, 부채춤, 소고춤, 민요, 전통놀이, 한옥체험, 전통예절체험 등 모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자 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지역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사물놀이, 부채춤, 탈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아시아문화심장터와 전주문화특별시 등 전주시 정 철학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도 진행됐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역사적인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새겨있는 유서 깊은 전통문화도시이자, 한옥과 한복, 한식 등 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며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주를 재외동포 교육기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연수에는 오늘과 14일 전주전대 합동강의실과 익산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각각 진행되며 연수 참여 인원은 1백여명이다.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계화과가 있는 일반고의 교원 중 최근 3년간 노동인권관련 직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담임 교사가 우선 참여하게 된다.

연수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의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고3 담임 100명 대상 노동인권 직무연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도내 특성화고 담임교사들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보건 직무연수를 받는다.

연수에는 오늘과 14일 전주전대 합동강의실과 익산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각각 진행되며 연수 참여 인원은 1백여명이다.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계화과가 있는 일반고의 교원 중 최근 3년간 노동인권관련 직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담임 교사가 우선 참여하게 된다.

연수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7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의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부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확히 숙지해야 현장실습 학생의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직업계고 육성 학교 1차 6개교·2차 3개교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대상으로 1차 6개교와 2차 3개교가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약 50억여 원의 지원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은 학교가 지역여건 및 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업계고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내 1차 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기계공업고, 남원용성고, 오수고, 원광정보예술고, 이리공업고, 학산고이며, 2차 공모에는 삼례공업고, 전

주공업고, 진경여고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년 2월까지 3년간 지원되며 학교당 평균 연간 1억9천여만원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로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만들기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개발 및 학교운영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고 싶은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